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9, No. 4, pp. 1~15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김수연*·이심열**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Recognition with Respect to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of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Kim, Su-Yeon*·Lee, Sim-Yeol**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cognition, applicability, class satisfaction, and needs as well as students' attitudes for eating behavior by 1st and 3rd graders of a mixed middle school located in Gyeonggi area in relation to food and nutrition section of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ereby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strategies of educational effect maximization of food and nutrition in the curriculum. 522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Both 1st and 3rd graders were found to exhibit relatively low preference for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While 1st grad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subject than 3rd graders, the frequency of practical use of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in every day life was higher in 3rd graders than that in 1st graders. For food and nutrition section of the subject, preference level of the 1st graders was higher than 3rd graders. The 1st graders were higher than 3rd graders in the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section as well as in usefulness in every day life of the unit. The applicability in every day life of the unit was found to be generally higher, with 1st graders having a higher level of applicability than 3rd graders ($p<0.001$).

1) 교신저자: Lee sim-yeol, 26-3 Pil-dong Chung-gu Seoul 100-715 The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413 Fax: 02-2260-8750 E-mail: slee@dongguk.edu.

Class satisfaction of the unit was higher in 1st graders than 3rd graders, with the most satisfactory unit being 'basics and practice of cooking' both for 1st and 3rd graders.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unit were higher in 1st graders than 3rd graders, with the unit highly needed being 'basics and practice of cooking' both for 1st and 3rd graders. Regarding interrelation of the degree of preference, need, applic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as the preference was high on food and nutrition, the degree of need, applic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was high. As respondents recognized food nutrition section necessary, they were more satisfied and showed high applicability for the section.

Therefore,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should be improved with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and subject contents so that they will be best fit for students by grade, to increase preferenc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in every life. In addition, to maximize the applicability of the subject in everyday life, sufficient class-time should be assigned for the purpose of experiment- and practice-based education, and a wide range of teaching strategies are needed to increase students' interest in the subject.

Key word: 식생활 단원(food and nutrition section), 인식(recognition), 요구도(need), 활용도(applicability), 수업만족도(class satisfaction)

Ⅰ. 서 론

기술·가정 교과는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는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이다(교육부, 1997). 기술교과와 가정교과가 병합된 제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므로,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기술·가정 교과의 영역별 내용 요소의 필요도, 흥미도 및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가정교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김경애, 2003).

기술·가정 교과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식생활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영양에 대한 지식은 건강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식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기술·가정 과목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성장 급등기로 충분한 영양소 섭취와, 올바른 식품의 선택, 식사 관리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조기 등교로 인한 결식이나 극심한 고교 입시 준비로 과로한 일과를 보내야 하며, 식사내용의 부실, 불규칙한 식사시간, 식품의 과대광고, 범람하고 있는 편의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식생활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주로 기술·가정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 식생활 교육을 실시한 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교육 실시 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육 후에 나타난 영양지식의 증가로 인하여 식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다(박인영, 이심열, 2006). 그러므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식생활을 관리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천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가정교과 내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최성희, 1980)에서는 중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단원은 식생활 단원으로, 대부분이 식생활 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학습 내용의 활용도는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하였다. 가정교과 내용 중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분야로 식생활분야가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김은주, 2005),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서 남학생은 조리실습에 대한 필요도가 여학생에 비해 약간 떨어졌으나 남·여 학생 모두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이은정, 1992). 식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오현주·홍성야, 1996)에서 남·여 학생 모두 '음식 만들기' 영역에서 높은 흥미를 나타내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을 '실질적인 식생활 기능을 배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홍은정, 1997).

기술·가정 교과에서 처음으로 식생활 단원을 배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식생활 영역의 각 단원들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시 배우고 있으며 상급학교로의 진학부담을 갖고 있는 3학년 학생의 경우 교과나 단원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활용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활용도 등에 관하여 성별로 비교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으나(김은숙 외, 2005; 김은주, 2005; 황인화, 2001), 학년별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년별 학생들의 인식 및 수업만족도,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학년별 학생의 관심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을 알맞게 보완하고 재조정한다면 기술·가정 교과의 학습의 효과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식생활 단원을 배우는 남·여 중학생 1, 3학년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 및 학생들의 식생활 태도를 학년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식생활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각 학년의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기술·가정 교과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길러 줄 수 있는 중요한 교과로서,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복지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를 고찰해 보면, 홍은정(1996)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정과목의 학습내용을 건전한 생활이념과 인간 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정과목은 중요하고 가정생활과 밀접한 과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명순(1998)의 연구에서 가정교과를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도시지역 학생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진림(2000)의 연구에서 가정교과의 선호도와 중요도, 식생활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도가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두경자(199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가정교과의 가치는 인식하고 있으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정교과에 흥미를 보이는 남학생들에게서 가정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활용정도에 대한 연구(고현숙·김기남, 1990)에서 학습내용의 활용정도는 가정과교육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가정교과 기호도가 높을수록, 수업시간 중 실생활에 이용되는 내용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또한 가정교과 시간배당이 적당하거나 약간 부족하게 여기는 집단일수록 활용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부족과 이론에 치우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므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배당하여 실천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김근자, 1985).

이와 같이 가정과 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남녀 모두 가정교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관계가 깊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교과내용을 실생활에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와 가정생활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가정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식생활 내용의 강조사항도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식품의 영양과 가치, 식생활개선, 조리실습의 기능 육성 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초영양과 조리지식을 강조하였고 식생활에서의 소비자 능력, 즉 식품선택과 관련된 내용, 식생활 기기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1학년에서는 청소년기의 영양, 식사, 기초식품군과 하루에 필요한 식품의 양, 기본적인 조리방법과 특성, 조리 시 식품성분의 변화 등을 알고 자신의 식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밥 짓기, 국끓이기, 간단한 음식 만들기로 구성되었고, 3학년은 식단 작성과 식품의 선택, 식사준비와 평가, 식사예절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2학년은 식생활 영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3학년으로 연계가 어렵고 3학년의 경우 식생활 단원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

전현주·윤인경(1992)등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술·가정교과 내용 선정 시 가정교과 지도영역에 관한 중요도 조사에서 식생활이 1순위로 나타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원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에서는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서 2학년에서 식생활 단원이 삭제되었다.

3. 식생활 단원에 관한 인식, 활용도 등에 관한 연구

남·여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오현주·홍성야, 1997)에서 식생활 영역 중 '음식 만들기' 단원이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높은 흥미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로 전체 학생의 68.3%가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특히 여학생은 조리실습,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어서, 남학생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불규칙한 식생활과 편식을 고칠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하였다.

전북지역 중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단원은 식생활 분야로 대부분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최선정, 2002), 조리실습을 거의 모든 학생이 좋아하나 집에서 다시 해보는 학생은 52.1%에 불과하다고 하였고(최성희, 1980), 주성희·손원교(1982)는 중학교에서 배운 조리를 가정에서 간혹 특별식에 활용하고 있고, 어머니의 일을 돕는 정도에 그치며,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조리과학, 조리조작 등의 과학적인 지식과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자기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홍은정(1997)은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 여학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임수경(2003)은 중학교 남학생은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식생활을 배우지 않아도 건강하므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황인화(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았고, 가정교과 및 식생활 단원의 인식을 긍적적으로 인식할수록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청소년의 영양관리에서, 여학생은 식품의 선택과 이용에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가영(2004)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 경우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다.

홍은정·백희영(1996)은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학생의 식생활 단원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분석에서 남녀학생 모두 조리실습과 관련된 간단한 음식 만들기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경숙·박미금(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중학생들의 학습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경애·최현덕(1999)은 식생활단원이 전통적으로 가정교과의 비중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가정과 학습내용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문옥현, 1986)에서 가정 과목과 가사 과목의 이론과 실기의 비율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교사는 가정과 교과 내용을 지역성과 학생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알맞게 보완하고 재조정하여 학습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이 식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리실습으로 인한 실제 생활의 적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실생활 활용도는 높았고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해 더 긍정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학습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한다.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한다.
   (1)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를 살펴보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한다.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살펴보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한다.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남녀 공학 중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식생활 단원을 배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문항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재 작성한 후,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 본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640부를 배부하여 553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31부를 제외한 총 522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70명(남 144명, 여 126명), 3학년 252명(남 122명, 여 130명)이었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도구는 선행연구(오현주, 1997 ; 허경숙, 2000 ; 송현주, 2005 ; 김은주, 2006)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전공 교수 및 가정과 교사들이 검토한 후, 1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미흡한 점은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내용은 7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사항 9문항,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6문항,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7문항, 활용도 12문항, 수업만족도 12문항, 요구도 6문항 등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학생의 식생활 태도에 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은 5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고, 식생활 단원의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단원에 대한 인식, 식생활태도는 각 항목에 대해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년별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 등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

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실생활에서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선호도에 의해 분류된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으로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식생활단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와 활용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를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장 좋아하는 단원으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식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학년이 '생활과 자원관리', 3학년은 '가족과 일의 이해'였다.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는 1, 3학년 모두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과 일의 이해'단원으로 3학년보다 1학년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p<0.05$).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은 1, 3학년 모두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가족과 일의 이해'를 들었다. 식생활 단원의 경우 좋아하는 단원이기는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원 중에서는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에 보통이상의 흥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교과의 실생활 도움정도는 1학년, 3학년 모두 '보통이다'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의 24.5%, 3학년의 33.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p<0.01$). 특히 3학년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한 학생과(31.8%) 이와 상반된 의견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학생의 비율(33.8%)이 비슷하였으며, 각각의 비율도 1학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정 교과에 대한 학년별 인식

(단위: 명, %)

내 용		전 체	1학년	3학년	χ^2
교과선호	좋아한다	224(42.9)	122(45.2)	102(40.5)	1.18
	싫어한다	298(57.1)	148(54.8)	150(59.5)	
좋아하는 이유	내용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33(14.9)	14(11.7)	19(18.6)	2.55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에	64(28.8)	36(30.0)	28(27.5)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6(34.2)	41(34.2)	35(34.3)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어서	21 (9.5)	13(10.8)	8 (7.8)	
	기타	28(12.6)	16(13.3)	12(11.8)	
싫어하는 이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67(22.3)	35(23.3)	32(21.3)	2.54
	내용이 흥미 없기 때문에	159(53.0)	76(50.7)	83(55.3)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6 (5.3)	8 (5.3)	8 (5.3)	
	본인의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계열과 다르므로	40(13.3)	19(12.7)	21(14.1)	
	기타	18 (6.0)	10 (8.0)	6 (4.0)	
가장 좋아하는 단원	가족과 일의 이해	108(20.7)	44(16.3)	64(25.4)	7.37
	의생활	57(10.9)	32(11.9)	25 (9.9)	
	식생활	205(39.3)	108(40.0)	97(38.5)	
	주생활	41 (7.9)	22 (8.1)	19(7.5)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111(21.3)	64(23.7)	47(18.7)	

<표 계속>

내 용		전 체	1학년	3학년	χ^2
가장 어려운 단원	가족과 일의 이해	83(15.9)	55(20.4)	28(11.3)	11.44*
	의생활	40 (7.7)	16 (5.9)	24 (9.5)	
	식생활	43 (8.2)	19 (7.0)	24 (9.6)	
	주생활	36 (6.9)	18 (6.7)	18 (7.1)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319(61.1)	162(60.0)	157(62.5)	
가장 중요한 단원	가족과 일의 이해	195(37.4)	100(37.0)	95(37.6)	5.18
	의생활	31(5.9)	12 (4.4)	19 (7.5)	
	식생활	87(16.7)	40(14.9)	47(18.7)	
	주생활	31(5.9)	17 (6.3)	14 (5.6)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278(34.1)	101(37.4)	77(30.6)	
교과 흥미	매우 흥미롭다	23 (4.4)	14 (5.2)	9 (3.6)	5.02
	흥미로운 편이다	106(20.3)	54(20.0)	52(20.6)	
	보통이다	227(43.5)	126(46.8)	101(40.1)	
	거의 흥미롭지 않다	93(17.8)	45(16.7)	48(19.0)	
	전혀 흥미롭지 않다	73(14.0)	31(11.5)	42(16.7)	
실생활 도움	매우 도움이 된다	19 (3.6)	12 (4.4)	7 (2.8)	14.04**
	도움이 되는 편이다	134(25.7)	61(22.6)	73(29.0)	
	보통이다	218(41.8)	131(48.5)	87(34.4)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0(15.3)	38(14.1)	42(16.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1(13.6)	28(10.4)	43(17.1)	

*: p<0.05, **: p<0.01, ***: p<0.001.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은 <표 2>에 나타내었다.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최현덕, 1999 ; 황인화·김기남, 2000 ; 박인영, 2004)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좋아하는 이유는 1학년(56.3%), 3학년(39.7%) 모두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1), 다음으로는 1학년(31%), 3학년(29.5%) 모두 '건강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은숙 등(2005)의 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나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없어서'라고 한 이준임(1996), 황인화(2001)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싫어하는 이유로는 1학년(36.4%), 3학년(46.4%) 모두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식생활 단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1학년, 3학년 모두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과 영양의 지식과 원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1학년은 '식생활에 관련된 영양문제, 식품선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학년은 '식단 작성과 식사준비와 같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이 가장 높았다. 식생활 단원내용수준에 대하여 학생들의 반수 정도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매우 쉽다', '쉬운 편이다'에 1학년의 29.7%, 3학년의 32.1%가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1학년은 43.0%, 3학년은 46.0%로 김은숙 등(2005)의 59.9% 보다는 낮았으나,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단원의 인식을 조사한 최현덕(1999)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1학년, 3학년 모두 '실생활에 적용할 시간

〈표 2〉 식생활단원에 대한 학년별 인식

(단위: 명, %)

내 용		전 체	1학년	3학년	X^2
선호도	매우 좋아한다	80 (15.3)	37 (13.7)	43 (17.1)	1.88
	좋아하는 편이다	194 (37.2)	105 (38.9)	89 (35.3)	
	보통이다	187 (35.8)	95 (35.2)	92 (36.5)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37 (7.1)	21 (7.8)	16 (6.3)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4 (4.6)	12 (4.4)	12 (4.8)	
좋아하는 이유	식생활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서	37 (13.5)	12 (8.5)	25 (18.9)	15.23**
	건강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83 (30.3)	44 (31.0)	39 (29.5)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으므로	13 (4.7)	3 (2.1)	10 (7.4)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132 (48.2)	80 (56.3)	52 (39.7)	
	기타	9 (3.3)	3 (2.1)	6 (4.5)	
싫어하는 이유	식생활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8 (13.1)	7 (21.2)	1 (3.6)	7.85
	실제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16 (26.2)	10 (30.3)	6 (21.4)	
	식생활을 배우지 않아도 건강하므로	6 (9.8)	1 (3.0)	5 (17.9)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5 (41.1)	12 (36.4)	13 (46.4)	
	기타	6 (9.8)	3 (9.1)	3 (10.7)	
단원의 기능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과 영양의 지식과 원리	188 (36.0)	109 (40.3)	79 (31.3)	10.70*
	식단 작성과 식사준비와 같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	127 (24.4)	55 (20.4)	72 (28.6)	
	식생활 관련 영양문제, 식품선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41 (27.0)	79 (29.3)	62 (24.6)	
	교양을 배우기 위한 단원	30 (5.7)	12 (4.4)	18 (7.1)	
	잘못된 식생활 개선 및 향상을 배우기 위한 단원	24 (4.6)	10 (3.7)	14 (5.6)	
	기타	12 (2.3)	5 (1.9)	7 (2.8)	
내용 수준	매우 쉽다	32 (6.1)	15 (5.6)	17 (6.7)	1.91
	쉬운 편이다	129 (24.7)	65 (24.1)	64 (25.4)	
	보통이다	266 (51.0)	137 (50.7)	129 (51.2)	
	어려운 편이다	68 (13.0)	40 (14.8)	28 (11.1)	
	매우 어렵다	27 (5.2)	13 (4.8)	14 (5.6)	
필요도	매우 필요하다	66 (12.6)	34 (12.6)	32 (12.7)	10.21*
	필요한 편이다	243 (46.6)	137 (50.7)	106 (42.1)	
	보통이다	173 (33.1)	86 (31.9)	87 (34.5)	
	거의 필요하지 않다	21 (4.1)	9 (3.3)	12 (4.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3.6)	4 (1.5)	15 (5.9)	
실생활 도움	매우 도움이 된다	25 (4.8)	7 (2.6)	18 (7.1)	13.03**
	도움이 되는 편이다	207 (39.7)	109 (40.4)	98 (38.9)	
	보통이다	208 (39.8)	119 (44.0)	89 (35.4)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 (10.7)	27 (10.0)	29 (1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 (5.0)	8 (3.0)	18 (7.1)	

<표 계속>

내 용		전 체	1학년	3학년	X^2
실생활 도움이 안되는 이유	교육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9 (11.1)	4 (11.8)	5 (10.6)	0.30
	관심이 없어서	19 (23.4)	7 (20.6)	12 (25.5)	
	실험실습이 부족해서	19 (23.5)	9 (23.5)	11 (23.4)	
	실생활에 적용할 시간이 없어서	23 (28.4)	10 (29.4)	13 (27.7)	
	기타	11 (13.6)	5 (14.7)	6 (12.8)	
배운후 관심	많은 관심을 갖는다	39 (7.5)	22 (8.1)	17 (6.7)	5.14
	관심을 갖는 편이다	163 (31.2)	82 (30.4)	81 (32.1)	
	보통이다	226 (43.3)	126 (46.7)	100 (39.8)	
	거의 관심이 없다	46 (8.8)	20 (7.4)	26 (10.3)	
	전혀 관심이 없다	48 (9.2)	20 (7.4)	28 (11.1)	

*: p<0.05, **: p<0.01.

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1학년의 38.5%, 3학년의 38.8%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과에 대한 수업시수 및 교과내용의 축소로 인해 충분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부족하여 식생활 단원에 대한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식생활태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박민경, 2002). 그러므로 학생들의 변화하는 관심과 실생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생활 영영에 대한 학습이 가정에서의 식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생활과 관련된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 시 넓은 안목을 갖게 하는 꼭 필요한 교과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본다.

〈표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년별 활용도

소단원	실 천 내 용	1학년	3학년	t값
청소년기의 영양	기초식품군을 이용하여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	3.44±1.02[1)]	3.18±1.09	2.8[**2)]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함유식품을 3개정도 고를 수 있다	3.87±1.03	3.63±1.15	2.5[**]
청소년의 식사	아침식사를 꼭 먹으려고 노력 한다	3.91±1.29	3.81±1.32	0.9
	간식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하게 먹는다	3.37±1.15	3.04±1.76	3.3[***]
조리의 기초와 실제	채소나 과일의 갈변을 방지할 수 있다	2.97±1.24	2.97±1.26	0.1
	밥을 지을 수 있다	3.45±1.50	3.47±1.50	-0.2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명절날 음식을 만들 때 식단 작성을 돕는다	2.89±1.44	2.64±1.46	1.9
	식품 구입 시 제조일자를 확인한다	4.02±1.16	3.96±1.22	0.8
식사준비와 평가	학교에서 조리실습 한 것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	3.64±1.27	3.48±1.33	1.4
	상차림을 보고 주요 식품군이 골고루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3.10±1.19	3.00±1.20	0.9
상차림과 식사예절	식사할 때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 한다	3.66±1.04	3.54±1.20	1.2
	설거지와 뒷정리를 할 수 있다	3.86±1.21	3.94±1.25	-0.9
	평균	3.51±1.27	3.39±1.33	3.88[***]

1) 평균 ± 표준편차.
각 항목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2) *: p<.05, **: p<.01 , ***: p<.001.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단원 중 단원 별로 2항목씩 12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2개의 항목 중 '기초식품군을 이용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함유 식품을 3개정도 고를 수 있다', '간식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하게 먹는다'의 세 항목에서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12 항목의 평균 활용도 점수도 1학년이 3.50, 3학년이 3.39로 3학년에 비해 1학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김은숙 등(2005)은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실생활에 활용하는 태도는 높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활용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3학년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가 낮고(표 5에 제시), 또한 활용도도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3학년들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하여 진로 선택이나 직업 선택 시 학교에서의 기초 학습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시된 항목 중 '식품 구입 시 제조일자를 확인 한다'에 1학년(4.02), 3학년(3.96) 모두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났으며, 이것은 최근 학생들이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식품의 성분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등의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명절날 음식을 만들 때 식단 작성을 돕는다'가 1학년(2.89), 3학년(2.64) 모두에서 가장 낮은 활용도를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현실성 있는 식생활 교육내용을 제시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 식단 작성 등과 같은 경우 이에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실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 식생활 단원 수업의 만족도

식생활 단원의 수업만족도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중 중학교 1학년, 3학년이 모두 이수한 중학교 1학년 식생활 단원부분만을 조사에 활용하였다. 평가항목은 각 단원 별 4개의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내용은 '교과내용에 흥미가 있었다',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졌다', '교과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흥미가 있는 실험·실습이 이루어졌다'이다.

학년별 식생활 단원에 대한 수업만족도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단원으로는 '조리의 기초와 실제'단원으로, 모든 소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업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기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는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조리 관련 내용이나 실습에 흥미를 보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이 단원이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며, 특히 흥미있는 실험·실습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수업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원 별로 보면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졌다'와 '흥미가 있는 실험·실습이 이루어졌다'의 항목에서 낮은 수업만족도를 보

〈표 4〉 식생활 단원의 수업만족도

평가 항목	청소년기 영양		청소년의 식사		조리의 기초와 실제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교과내용의 흥미	3.27±1.05[1)]	3.12±1.08	3.11±1.13	3.06±1.06	3.50±1.17**	3.19±1.12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	2.83±1.08	2.75±1.05	2.84±1.09	2.70±0.99	3.03±1.14	2.86±1.11
실생활 적용의 도움	3.19±0.99**[2)]	2.96±1.03	3.23±0.99***	2.94±1.03	3.39±1.17***	3.01±1.07
흥미 있는 실험·실습 수행	2.90±1.16**	2.66±1.09	2.89±1.13*	2.69±1.06	3.21±1.28	3.04±1.18
평 균	**3.05±0.86**	**2.87±0.87**	**3.02±0.86**	**2.85±0.86**	**3.28±0.94**	**3.03±0.93**

1) 평균 ± 표준편차.
각 항목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2) *: p<.05, **: p<.01 , ***: p<.001.

였다. 따라서 각 단원 별로 수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재개발과 교육적 여건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식생활 단원의 요구도

학년별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는 <표 5>와 같이 전체적인 평균이 1학년이 3.28, 3학년이 3.07로 1 · 3학년 모두 3점대의 평균점을 보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각 단원별 학생들의 요구도가 3학년에 비해 1학년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용도가 높은 1학년에서 식생활단원에 대한 요구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년별 요구도

식생활 단원	1학년	3학년	t값
청소년기의 영양	3.20±1.02[1)]	3.17±1.07	1.37
청소년의 식사	3.21±1.02	3.05±0.99	1.76
조리의 기초와 실제	3.63±1.17	3.39±1.19	2.32[*2)]
식단 작성과 식품선택	3.29±1.01	2.94±1.07	3.91[***]
식사준비와 평가	3.19±1.07	2.92±1.11	2.82[**]
상차림과 식사예절	3.16±1.05	3.04±1.18	1.14
평 균	**3.28±1.09**	**3.07±1.12**	5.35[***]

1) 평균 ± 표준편차.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2) *: p<.05, **: p<.01 , ***: p<.001.

각 단원별 요구도에서도 두 학년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1학년의 경우 '조리의 기초와 실제',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청소년의 식사', '청소년기의 영양'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반면, 3학년은 ' 조리의 기초와 실제',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상차림과 식사예절'의 순으로, 1학년은 식품과 조리에 중점을 두는 반면, 3학년은 청소년기 영양 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단원은 '식단 작성과 식품선택'으로 1학년이 3.29, 3학년이 2.94로 나타났다(p<0.001). 교사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주제는 청소년기 영양,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으로 청소년기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위한 식품과 영양에 관한 기초지식들이었다(차명화·김유경, 2005).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내용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홍은정, 1996)에서도 영양의 중요성, 적절한 영양 섭취, 청소년기의 영양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의 영양과 같은 주제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의 실제 부분에는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식단작성이나 식사평가 등의 부분에는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가정과 교육의 내용은 실생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리에 관심이 많고 개성과 색채감각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푸드 코디네이션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의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식생활 단원의 선호도, 필요도 및 만족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표 6>은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 선호도에 따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편이다'는 선호도가 높은 집단, '보통이다'는 선호도가 중간인 집단,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는 선호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요구도, 만족도 및 활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을수록 요구도, 만족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선호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 필요도가 3점대의 평균점을 보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선호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2점대의 평균점을 보여 필요도가 낮다고 하였다. 즉 식생활 단원 선호도가 높을수록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도 선호도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p<0.001), 식생활 단원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도도 선호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식생활단원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내용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식생활단원 선호도에 따른 요구도, 만족도 및 활용도

	선호도가 높은 집단	선호도가 중간인 집단	선호도가 낮은 집단	F값
요구도	3.48±0.77[1)]a	3.03±0.73b	2.29±1.01c	61.049[***2)]
만족도	3.29±0.74a	2.84±0.70b	2.44±0.98c	39.594[***]
활용도	3.61±0.70a	3.35±0.64b	3.08±0.88c	16.92[***]

1) 평균 ± 표준편차.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2) ***: p<.001.

<표 7>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 만족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와 활용도는 유의적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현숙·김기남(1989), 김은숙 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7〉 식생활단원의 요구도, 만족도와 활용도의 관계

	만족도	활용도
요구도	0.567[***]	0.344[***]
활용도	0.434[***]	

***: p<.001.

식생활 단원에 대한 만족도도 활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p<0.001),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생활 단원의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 연구 및 다양한 교재 개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도와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p<0.001),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할수록 학습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수업방식은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이론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실험·실습 등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시수의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남·여 공학 중학생 1학년 270명과 3학년 252명, 총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년별로 기술·가정교과 내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 및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태도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교과에 대하여 1학년과 3학년 모두 선호도가 낮았으며, 좋아하는 이유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이며, 싫어하는 이유로는 '내용이 흥미 없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를 배우기전 교과에 대한 인식으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과를 배운 후에는 1학년, 3학년 모두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에 높게 나타나 교과를 배우기 전, 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교과에 대하여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흥미도를 보였으며, 실생활 도움 정도는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기술·가정교과 내의 식생활단원에 대하여 1학년의 선호도가 3학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좋아하는 이유는 1학년, 3학년 모두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싫어하는 이유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도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는 1학년, 3학년 모두 '실생활에 적용할 시간이 없어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식생활단원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는 전반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P<.001). 가장 높은 활용도는 1학년과 3학년 모두 '식품 구입 시 제조일자를 확인 한다'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활용도는 1학년과 3학년 모두 '명절날 음식을 만들 때 식단 작성을 돕는다'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식생활단원에 대한 수업만족도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단원으로는 '조리의 기초와 실제'단원이었으며, 각 단원 별로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졌다'와 '흥미가 있는 실험·실습이 이루어졌다'의 항목에서 수업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5)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1학년과 3학년 모두 '조리의 기초와 실제'였으며,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1학년은 '상차림과 식사예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은 '식사 준비와 평가'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요구도, 만족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도와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p<0.001),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할수록 학습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와 활용도는 유의적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선호도 및 활용도, 요구도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의 선호도, 요구도, 활용도 등이 3학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영역을 선호할수록 식생활 수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식생활영역 요구도와 만족도, 활용도 등이 높았다. 따라서 식생활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식생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용도도 높게 나타나 학습내용의 개선은 물론 지도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학년별 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 및 교과 내용의 재편성을 통하여 실생활 도움 정도, 흥미 및 요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식생활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선호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가치 있는 교과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애·정난희·신부용(2003). 중고등학생의 제7차 기술·가정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101-120.

김은숙·고무석·정난희(2005).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3), 53-70.

김은주(2005). **서울농촌 지역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 내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현숙·김기남(1989). 가정과 교육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31.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두경자(1997).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

박민경(2002).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 내용분석 및 교육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영·이심열(2006). 중학교 기술·가정 식생활 단원 교육이 학생들의 영양지식·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25-38.

배명순(1998). **중학교 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의생활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현주(2005). **남녀 고등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중 식생활 영역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현주·홍성아(1997). 인천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9-37.

유인영(2001). **조리실습 경험에 따른 남녀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 가사노동의식 및 가사노동 참여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신상옥(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7-30.

이준임(1996). **제 6차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림(2000). **중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과의 관련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수경(2003). **남자 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 및 가정교과 영역별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주·윤인경(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 19-31.

주성희·손원교(198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공주사대 논문집** 제20호, 141-175

차명화·김유경(2005). 식생활 단원 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변화 요구도 및 관련변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41-53.

최선정(2002). **전북 일부지역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요구도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희(1980). **전라북도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덕(1999).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숙(2000).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정(1996).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석사학위논문.

황인화(2001). **남녀 중학생의 가정 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남녀중학생 1학년 270명과 3학년 252명, 총 522을 대상으로 학년별·성별에 따라 기술·가정교과 내의 식생활단원에 대한 인식, 활용도, 수업만족도, 요구도 및 학습 후 학생들의 식생활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가정 교과에 대하여 1학년과 3학년 모두 선호도가 낮았으며, 좋아하는 이유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이며, 싫어하는 이유로는 '내용이 흥미 없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에 대하여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흥미도를 보였으며, 실생활 도움 정도는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 내의 식생활단원에 대하여 1학년의 선호도가 3학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좋아하는 이유는 1학년, 3학년 모두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싫어하는 이유로는 1학년, 3학년 모두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도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는 1학년, 3학년 모두 '실생활에 적용할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식생활단원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P<0.001$). 식생활단원에 대한 수업만족

도가 낮은 편이었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요구도는 1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은 1학년과 3학년 모두 '조리의 기초와 실제'였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요구도, 만족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도와 만족도, 만족도와 활용도, 요구도와 활용도간에 모두 유의적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선호도 및 활용도, 요구도 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학년의 선호도, 요구도, 활용도 등이 3학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영역을 선호할수록 식생활 수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식생활영역 요구도와 만족도, 활용도 등이 높았다. 따라서 식생활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식생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7일